부드러운 카리스마, 북일고 터닝포인트의 정점 찍었다

강익수 북일고 교장

강익수(57) 북일고 교장은 교육과정 전문가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발주한 연구업무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 2009개정교육과정연구에 대한 기초 연구 등 크고 작은 정책연구에 20개 이상 참여했다. 특히 현 고교교육의 틀이라 할 만한 2009개정교육과정의 입안과정에 깊숙히 관여했다. 현재 많은 자율고들이 정규과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UP, IB, AP 등을 고교에서도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 중요한 연구를 한 바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강 교장은 교육정책 입안에 참여한 교육과정 전문가 가운데 유일한 사립고교 교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졌다. 교육과정을 연구해온 학자이자 전문가라는 경험과 이력을 바탕으로 강 교장은 전국단위 자율고로 새롭게 도약하는 북일고에서 '제2의 개교' 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교과부 교육과정연구 참여경력 '교육이론 전문가'
북일고 전 교사 대상으로 '수업컨설팅', 국내외 향한 '학교홍보' …쉴 틈 없어

학교 알리느라 매우 바쁜 일상

강익수 교장을 만나기란 쉬우면서도 어렵다. 일단 어려운 이유는 강 교장이 학교를 비우는 날이 많기 때문. 대신 만나기 쉬운 곳은 북일고를 알리는 설명회 자리다. 강 교장은 지난 봄과 여름에 걸쳐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횡단해 가며 MIT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콜롬비아 등으로 'college tour'에 나섰다. 북일고를 알리기 위해서다. 북일고는 2010학년에 국제과정을 신설해 해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30명의 남녀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해외대학 진학에 있어 GPA(내신) SAT(미국수능) AP(대학학점 선이수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출신고교에 대한 인식이다. 학교정보는 해당학생의 수학능력을 가늠케 하는 지표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성과는 좋다. 칼텍의 경우 "북일고 국제과정 학생이 원서를 내면 두세 번 검토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다. 강 교장은 "북일고가 기존의 한국 학교들과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이해하는 것 같다. 면담을 통해 각 대학이 바라는 인재상 등 입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도 수집했고, 북일의 교육과정이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는 데 충분하다는 확신도 들었다"고 말한다.

사실 북일고는 저력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상황. 국내에서도 강 교장이 바쁜 이유다. 대원 영훈 청심 등 국제중은 물론 북일고를 궁금해 하는 중학교는 장소를 불문하고 교장이 직접 찾아 나선다. 한화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봄엔 63빌딩에서 중학교 3학년 부장을 대상으로 디너 설명회도 진행했다. 수도권 중학교 모두에 일일이 초청 공문을 보내고 설명회 자리를 주도한 강교장의 노력은 올해 신입생 선발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교육전문가, 학교일선에서 힘을 싣다

강 교장은 교육과정 전문가로 교과부의 정책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파견 근무를 했는데, 강 교장의 경우 이색적이다. 교과부 업무에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 교사가 참여하는 건 유례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엔 교육에 대한 강 교장의 끊임없는 열망이 배경으로 자리한다. 강 교장이 근본적인 교육문제에 접근하게 된 건 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 이 발단이었다. "자립형사립고 정책과 학교교육의 중핵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을 두고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내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2000년 7차 교육과정 실행방안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 전문가가 되고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국가 교육과정을 새롭게 설계해 보겠다는 소망을 갖고 교육과정 이론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하기로 결심,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했고 열심히 공부했다. 박사과정 중에는 '미국 교육과정 100년사' 를 다룬 책을 공동번역해서 출간하기도 했다."

강 교장은 대학원에서 'AP와 IB 비교연구' '세계화에 대비하는 고교교육과정의 방향' 등 교육과정 논문발표 및 국가 교육과정 정책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키우면서 2009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연구를 하게 되었고, 이후 교과부에서 2009개정교육과정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과정과 근무를 제안해 옴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개정 업무를 맡게 되어 소망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된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강 교장은 "학교장의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며 "물론 여러 제약도 있지만 학교별로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교장이 직접 북일고 전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교육과정 전문가다운 행보다. "북일고 교사진은 실력과 열정 면에서 매우 훌륭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학교혁신은 선생님들의 참여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는 말이 있듯 교사들의 교육력과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단계로 전 교사에 대한 수업컨설팅을 실시했으며, 2단계로 교수법과 평가방법에 대한 연수를 통해 실질적인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북일 '터닝포인트' 의 정점 찍어

사실 그간 북일고엔 잡음이 꽤 일었다. 2010년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며 국제과정 신설과 맞물려 불거진 일이다. 일반과정과 국제과정 교사간 마찰이 있었던 것. 한 학년 400명 가량 중 30명에 불과한 국제과정에 과도한 지원을 약속한 게 불협화음의 시작이었다. 애초에 국제과정 학생 전원에게 학비 등을 전액 면제하고 해외대학 진학 시 등록금까지 책임지겠다던 공언이 수그러든 것도 맥을 같이 한다. 천안시내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북일고가 관심을 끈 건 대대적인 장학제도 때문이었는데, 국제과정 신설은 당시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급하게 별도 반이 구성될 정도로 파격적인 사건이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갈 문이 좁아졌다는 생각에 지역 여론도 좋지만은 않았다.

구겨진 종이가 멀리 날아가는 법. 그간의 갈등이 오히려 발전의 동력이 됐다. 작년 9월 부임한 강 교장은 글로벌 에듀케이션 전공자답게 일반과정과 국제과정을 아우르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상해 실현해냈고,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교원구성을 재편해 학교와 구성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마련했다. 자율고 완성년을 맞아 올 대입실적이 기대되는 마당에 강 교장

2013 북일고 "일반과정 반 3등 이내, 국제과정 토플 115점 정도"

북일고는 2013학년에 12학급 4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국단위로 50% 광역(충남)단위로 50% 선발하는 건 작년과 동일하다. 일반과정과 국제과정으로 구분하며, 일반과정은 11학급 385명(야구부 12명 포함 학급당 35명)의 남학생을, 국제과정은 1학급 30명의 남녀학생을 선발한다. 자율형사립고인 북일고 역시 입시는 '학생부교과-자기개발계획-면접' 형태의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통한다.

올해 북일고 전형방식은 두 가지 변화가 있다. 첫째 일반과정과 국제과정 모두 1학년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우선선발제도를 폐지하고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1.5배수를 교과성적과 출결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240점)과 서류심사 및 면접 점수(70점)를 합산해 최종 선발한다. 국제과정의 경우 영어 교과만 보던 방식에서 5개 교과(국영수사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면접을 통해 총합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진정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학교측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따라서 교과성적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서류와 면접에서 뒤집기가 가능해졌다.

면접은 자기개발계획서 4개 항목과 동일하게 항목별 4개의 부스를 거치면서 부스별로 각 5~10분 가량 진행한다. 부스별로 2~3명의 면접관이 자기개발계획서에 근거해 질의한다. 학생 1명을 면접관 8~12명이 상당히 면밀하게 진행하는 셈이다.

일반과정의 경우 내신은 반 3등 정도까지가 커트라인이었다. 유영상 입학부장은 "작년의 경우 반 2등 이내면 우선선발에 합격했고, 반 4~5등까지는 커트라인에 걸렸으며, 240점 만점 기준 226점까지 우선선발했다"고 말했다. "작년엔 전체 합격자의 10% 내외가 자기개발계획서로 교과성적을 뒤집었다"고도 덧붙였다.

국제과정의 변별력에 대해 이영준 부장교사는 "내신 성적 최우수자가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자기개발계획서 및 면접 모두에 있었고, 면접 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은 풍부한 독서량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기 논리력과 표현능력을 갖췄으며, 입학생들의 토플 평균점수는 115점 정도인 것으로 입학 후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익수 북일고 교장은 교육과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학교를 뒤흔들지 않고도 협력을 이끌어내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북일고 '제2의 개교' 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유승현 기자 blog.veritas-a.com/isphoto

의 부임이 교육커리큘럼을 더욱 정교화하고 교직원의 사기를 북돋는 계기로 작용했다.

작년 한화그룹에서 발주한 북일학원(북일고 북일여고의 학교법인)에 대한 컨설팅 연구용역에 강 교장이 연구진으로 참여한 것이 교장 부임의 계기였다. 강 교장은 당시 북일학원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연구진행 중 교장초빙을 제안 받았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땐 스스로 적격자인지에 대한 회의가 커서 거절했지만, 연구가 끝난 뒤 다시 제안을 받았고, 면접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김승연 이사장(한화그룹 회장)과의 최종 면접을 거쳐 2011년 9월1일 북일고 북일여고 통합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면접 과정에서 학교혁신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으며, 북일고는 일반과정과 국제과정이 함께 있는 학교로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세계화에 대비한 고교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진정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교장직을 맡게 되었다."

강 교장이 거는 드라이브의 뒷배엔 한화그룹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자리한다. "2012학년 학교 총예산액 131억원 중 등록금수입이 30억원, 재단지원이 49억원이다. 재단이 등록금의 1.6배, 총예산액의 37%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평가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진학성과 외에 학부모의 부담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게 될 것이다. 현재 북일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연간 1000만원 정도인데 비해 재단의 재정지원은 시설투자를 제외하고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일반과정 1350만원, 국제과정 2500만원 수준이다. 이미 지난 2년 간 기숙사 및 별관동 증축에 약 280억원을 재단이 투자했다. 향후 종합관과 체육관 신축에 21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인데, 완성된다면 전국 최고 수준의 첨단시설을 갖춘 학교가 될 것이다."

교육전문가가 만든 특색 프로그램

교육이 국가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무론적 관점에서 강 교장의 교육철학은 '올바른 통일관을 가진 민주시민과 인간애를 지닌 세계인 양성' 이다. "분단국가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일류국가로 만드는 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애국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데 교육이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천하늘고 교감 시절, 올바른 통일관을 가진 지도자 육성을 위해 통일교육을 과제연구로 진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화 시대에 전지구적인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보아야 하며 세계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력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활동의 각 영역에서 세계이해교육을 구현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강 교장이 북일고 부임 후 가장 강조하는 것은 'Total Edu-Care System' 이다. 강 교장의 섬세함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기숙학교는 교육은 물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학생을 보살펴야 한다. 기숙학교에 필요한 Total Edu-Care System의 일환으로 학생 일일 건강체크 시스템(Medical Check)을 도입, 지역 내 대형 병원과 협정을 체결하고, 정규수업 종료 후 버스를 매일 운행하면서 북일고 학생들의 진료를 최우선적으로 하고있다. 보건교사가 야간에도 교대근무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전문가답게 균형성과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도 정비했다. "현재 우리교육의 문제점은 특목고의 경우 과잉학습이나 과소학습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 자사고의 경우 국영수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일고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진로에 맞게 적정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북일고 학생들은 입학하기 전 3주간 신입생 적응캠프를 통해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정하는 기회를 갖는다. 입학 후에도 학생에 따라 설계된 진로맞춤형 교육과정에 따라 3년 간의 학업계획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특히 2학년에 개설된 '과제연구' 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과제연구' 에서는 현재 10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대학교수 또는 한화계열 연구소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지도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인력풀과 재정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교-대학 연계 R&E 프로그램' 도 마련되어 있다. 공주대 단국대 교수들이 연구하는 8개 분야의 프로젝트에 2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함께 연구하면서 지도를 받고 있으며, 과제연구의 연장선에서 보다 심층적인 학습을 통해 연말에는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독서활동도 강화했다. '5단계 독서 프로그램(男兒須讀五車書)' 으로 "평생학습자로서의 기본적 소양은 꾸준한 독서습관"이라는 강 교장의 교육철학 아래 방학을 활용 40권 정도의 책을 읽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한다. 모든 프로그램이 진로에 맞춰 한 줄에 꿰여 있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도 세계화 시대의 일원으로서 국제어인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키워 English Free Talking이 가능하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고, 따뜻한 인간애와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전교생이 천안시내 21개 기관과 연계, 월 1회 봉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했다. 일반과정과 국제과정 학생들의 활발한 교류도 계획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이미 동아리 활동은 물론 일반과정 경제토론대회에 국제과정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정도로 서로간 친목이 다져진 상태다. 한 학년 30명 가량에 불과한 국제과정 학생들이 학교 전체에 국제화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바라본 교육현안

강 교장은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과 재능이 많은 한국 학생"을 한국교육의 희망이라 꼽는다. 다만 제도 면에선 아쉬운 요소들이 있다. 학교현장에 들어서니 더욱 체감되는 일들이다. 교육현장의 현안이라는 데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진다. "이미 일본에서도 반성이 일고 있는데, 고교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학업성적 일변도로 선발하는 대입제도다. 개별학생에 대한 총합평가(holistic assessment)를 정립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본으로 표준화 시험을 일부 반영하고 대학별로 실시하는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하도록 대입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수시 일반전형에서 수능자격기준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고교교육에서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이 학교교육 중심으로 평가해서 선발하도록 해야 하며, 고교는 대학이 고교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별학생에 대해 맞춤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강 교장 부임 후 북일고에는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Teaching 중심에서 학생들의 Learning이 일어나도록 교수법을 전환한 교사들 품에서 학생들은 '진짜 배움' 을 통해 성과를 낼 것이다. 일반과정과 국제과정 교사와 학생들은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다. 한화그룹은 전폭적 재정지원은 물론 연구분야에 전문가를 투입,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신장시킬 것이다. 해외 명문학교들과의 교류와 북일의 세계화 교육을 통해 북일고 출신의 글로벌 인재가 등장할 것이다. 변화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뒤흔들만도 하지만, 강 교장이 가져온 바람은 부드럽게 길을 만들어내고 있다.

/김경숙 기자 inca@veritas-a.com

한화그룹이 전폭 지원하는 '북일고'

지난해까지 서울대 350명, 고려대 615명, 연세대 346명, KAIST · 포스텍 · 사관학교 등 특수목적대에 414명을 진학시키는 등 충남지역에서 공주한일고 공주사대부고 등과 함께 지역명문으로 손꼽혀온 북일고는 올해 자율형사립고 완성년도를 맞아 자율고 1기의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 여기에 재단이 드라이브를 걸었다. 북일고는 한화그룹의 학교법인 북일학원이 운영하는 학교다. 올해 재단지원만 49억원으로 학부모 부담금은 연간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학생 교육혜택은 학생 1인당 연간 일반과정 1350만원, 국제과정 2500만원이나 된다.

기숙형학교를 지향하는 북일고는 전국최고 수준과 규모의 기숙사를 운영한다. 아파트식 4층 건물 2개 동, 114실(4인1실)의 기존 기숙사에 6층 건물 2개 동, 200실(2인1실) 수용의 기숙사를 작년 신축했다. 전담사감교사 6인이 3개 조로 방과후 심화학습 및 생활지도부터 이튿날 아침 등교시까지 지도하고 있다. 야간 전담 보건교사도 익일 등교시까지 상주하며, 전담 환경미화원이 청소 부담을 줄여준다.

'스쿨인스쿨' 방식으로 해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국제과정 운영방식이 독특하다. 방과후학습 체제로 유학반을 운영하는 외고들과는 달리 15명의 아이비리그 출신 외국인교사들과 별도 카운슬러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24시간 생활하는 특징이 있다. 현재 미국 2개 학교(Westlake High School, TMC), 싱가폴(Hwa Chong Institution), 인도네시아(Binus International School), 호주(Brisbane Grammar School), 중국(Suzhou Foreign Language School) 등의 교육기관과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재학생들의 AP평균점은 4.4/5.0, SAT평균점은 Critical Reading 750, Math 780, Writing 730일 정도라 2013년 첫 실적에 큰 기대가 실린다.